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3년 8월 30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환경기후정책과	담당자	• 탄소중립전략팀장 • 담당자	손여순 ☎440-8591 김지연 ☎440-859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15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 개최, 전국 지방정부 참여
- 기후 적응 노력 의지 표명과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국제적 위상 높여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환경부, 전국 지방정부 단체장 및 실·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을 개최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열리고 있는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의 연계 행사인 이번 선언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전국 지방정부 단체장 및 실·국장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선언은 ‘지역이 앞장서는 기후적응, Scale up Local Adaptation, Act now!’를 슬로건으로 지방정부의 기후 적응 노력 의지 표명과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국제적 위상 확대를 위해 최초로 광역 시·도를 포함한 전국 기초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선언식에서 전국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기후 적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정복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기후적응 선언과 실천을 다짐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상기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적응 정책을 공유하는 주요한 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 사진은 행사(15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공동 선언문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공동 선언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후재난과 피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00개 지방정부가 선언에 참여하여,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해야 하는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후적응 사회
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
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적응 정책을 우선하여 추구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체제와
지역 기반을 구축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적응 사회로의 전환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사회에 불평등하게 나타남을 인지하고, 취약계
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하나.

우리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간 공동 사업 발굴 및 정보 교류를 확대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실효성 있는 기후적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
록 적극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적응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적응정책을 마련
하고 실행한다.

2023년 8월 30일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동

○ 서명

- 광역자치단체

시도명

직 위

성 명

서 명

- 기초자치단체

시도명

시군구명

직 위

성 명

서 명